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음 11월 4일) 제19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서해안권 공동발전방안 마련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파라  
도, 공동용역 협약 체결  
군산·김제 등에 자원 개발

전북도는 20일 전북 서해안권 지역 발전계획이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와 공동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발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 서해안권(군산, 김제, 고창, 부안) 지역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발전 모델 발굴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었다. 이번 용역은 개별 시군 단위의 사업 발굴 보다는 시군간 역사와 문화 공존지역의 자원을 공유, 상호협력하고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북도에서 제안한 새만금·해안 관광거점 계획은 서해안권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단일지역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 협력과 발전 방안을 공유,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북도와 국토부는 공동용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에서 용역을 주관하고, 국토부에서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동수행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해안권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미래발전 동력이 되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에 행정재력을 집중, 전북 서해안권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에 수립한 용역성과를 토대로 국가 SOC 계획과 중앙공모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 김진환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안권 지역연계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 서해안권 인접 시군이 자원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폭력 피해자들 상담도 원스톱으로  
20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가 김승일 행정부지사, 최두영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이훈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식을 가졌다.

20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가 김승일 행정부지사, 최두영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이훈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2면>

## “지역발전 위해 국기원 전주로 이전해야”

강동화 전주시의원 5분 발언  
“무주태권도원에 핵심기관 이전 외면으로 전북 꿈 못이뤄 새만금 공항 등 인프라 확충 추진되는 지금이 적기”



성지로 전북을 견인하기 위해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무주태권도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WTF), 대한태권도협회(KTA) 등 핵심기관이 교육, 문화,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무주태권도원 이전을 외면하면서 태권도 성지가 서울과 무주로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규모

가 당초 1조원대에서 2,475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고 민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반쪽 개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태권도를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태권도 핵심기관인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시켜 전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기원의 전주이전은 전주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공항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는 지금이 국기원 이전을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남 영암서 시 추가 발생 도, 농가 일제소독 나서

전북도는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국 다습 계열사 소속 농장 및 업체에 취해진 조치로 20일 오후 2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동중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4개반)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와 해당 가금관련 모든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시·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검토안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검토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평창올림픽 개막 50일을 앞두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늦춰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완성 시기가 내년 3월로 알려진 만큼 내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심산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

성을 높이고,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올림픽 참가국의 불안감도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은 통상 3월 초부터 한 달여간 실시돼 왔다.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이 훈련을 비난해 온 만큼 올림픽 기간에 추가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전용열차에서 가진 미국 NBC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뉴시스

## 안철수 “대표직 걸고 바른정당 통합, 전 당원에 묻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대표직을 걸고 전 당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0일 오전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

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는 결연한 각오로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의

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중군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 2면 -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시동
- 4면 - 고교 무상급식비 35% 지원
- 6면 - 간편결제 · 송금 1년세 3배 급성장

산타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  
2017. 12. 23. (토) ~ 25. (월) 임실치즈테마파크

- 경연 프로그램  
· 17명의 산타를 찾아라  
· 산타경연대회! 내가 산타야~!
- 공연 및 상설체험  
· 영광마칭밴드, 전자현악, 컵테일 공연 등  
· 화덕피자, 얼음미끄럼틀 타기, 산타양말 소원적고 선물 받기 등
- 주최·주관 Cheese Park (재)임실치즈테마파크  
후원 전라북도 임실군  
문의 063)643-3903 (임실치즈테마파크)  
www.cheesepark.kr